

I. 개 요

1. 일시 : 2011. 6. 28 (화) 17:00~18:30

2. 장소 : KIEP 9층 대회의실

3. 발표자 및 발표자료 제목 :

- 송성기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사무국장
 - o 동북대지진 영향과 한일산업협력 방향
- 김양희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 o 일본의 TPP 참여 배경과 전망

4. 참석자 (10명 : 외부 6 + 내부 4)

구본관 수석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송성기 국장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오태현 교수	(경희사이버대)
이형오 교수	(숙명여대)
정 혁 처장	(KOTRA)
정 훈 교수	(인천대)
강준구 전문연구원	(KIEP)
김양희 소장	(KIEP)
김은지 전문연구원	(KIEP)
이형근 전문연구원	(KIEP)

II. 주요 발표내용 (상세 내용 별첨 참조)

(1) 동북대지진 영향과 한일산업협력 방향

□ 2011년 1월 삼성 이진희 회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삼성전자가 일본을 앞선 것처럼 보이나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아직 멀었다”고 밝혀 최근 일본에 대한 관심이 제고

- 그러나 최근까지 일본경제가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지적될 정도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일본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이 사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일본은 벤치마킹 및 협력 상대로서 用日전략이 필요한 실정

□ 동북대지진이 한일 협력사업에 미친 영향

- 지진 영향으로 양국 재단간 회의가 취소 또는 연기됐으나, 6월부터 협력사업 추진이 정상화되고 있음. .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사업영역은 크게 기술협력, 시장진출, 지식정보의 세 분야임.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특히 기술협력 분야가 가장 활발한데, 기술체득을 위한 기술자 현장 연수, 한일산업기술페어, 일본 퇴역기술자 기술고문 매칭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지진 이후 협력의 패러다임 변화

- 공간적으로 ‘한국+일본’에서 ‘동아시아(신흥국)’으로, 기능적으로 ‘부품소재 조달처’에서 ‘부품개발/조달처 분산’으로, 방식에서 ‘일방적’에서 ‘수평적’으로, 과제는 ‘무역역조 증가’에서 ‘무역역조 개선 조짐’으로 변모

- 이에 따라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증가, 제3국에서의 한일 연계 활성화, 대일수출 증가, 인재교류 확산 등이 예상

(2) 일본의 TPP 참여 배경과 전망

□ 2010년 11월 일본정부는 '新FTA 정책'인 「포괄적 EPA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을 수립했는데, 이 기본방침에서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계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에의 참여의지를 표명함.

- 이 기본방침은 신흥국의 부상, 일본경제의 추세적 저하, DDA 전망 불투명, 주요국간 FTA 확대 등의 변화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지체되어 성장기반 재구축의 필요성이 절박하다는 상황인식에서 출발했음.

- 일본의 TPP 참가 목적은 개방을 통한 경제활성화, 한미 FTA 발효시 미국시장에서 불리해지는 일본기업에게 동등한 경쟁조건 부여, TPP의 무역투자 규범 결정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해 일본에 유리한 규범 제정, 지역통합체 논의시 일본과 미국이 주도 등에 있음.

□ TPP의 진화과정

- TPP는 싱가포르-뉴질랜드 FTA를 기점으로 2005년 논의가 시작되어, 2006년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의 4개국(P4)간에 FTA가 체결·발표됨.

° P4의 특징은 1) 상품무역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 2) 처음부터 참가범위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임.

- 2011년 2월 기존 P4에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5개국이 추가되어 9개국(P9)이 6차 협상을 마침.

° Claude Barfield and Philip Levy(2009) - TPP에 대해 미국에 의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새판짜기(wholesale reconfiguration)로 표현

□ 일본의 TPP참가는 민주당 정부의 리더십 미약, 부처간 이견, 농수산업의 구조조정 필요 등의 요인에 따라 단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음.

III. 주요 논의사항

□ 동일본 지진피해복구 성금 모금에 우리나라는 220억 원을 모금했으며, 한일재단에서도 4억을 모금함.

- 재단에서는 1억 원 정도를 예상했으나, 우리 기업들은 금번 동일본대지진에 대해 애석해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성금 모금에 동참

□ 우리나라의 최근 대일 수출은 지진피해 복구품 및 생필품 위주로 수출급증세가 지속되고 있고, 반면 수입은 소폭 감소세에 있음.

-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전년대비로는 줄어들고 있음. 이와 관련해 7월 12일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에서는 한국의 수출전략과 기술네트워크를 주제로 세미나 개최 예정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일본대지진의 피해복구는 기업 차원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예컨대 자동차 분야의 완전 복구는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

□ 한일경제회의가 4월에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동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9월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됨.

□ 재단의 사업 가운데 '일본 퇴역기술자 기술고문 매칭' 사업은 최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가장 큰 규모로 하고 있음.

- 또한 시장진출을 위한 비즈니스플랫폼 구축으로는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산업인력역량강화사업은 최근 일본기업이 우리를 경쟁상대로 인식하면서 협력을 회피하는 현상도 발생

□ 지진 이후 협력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해 부품개발 및 조달처의 분산이 예상되는데, 이는 공급기지의 글로벌화와 현지 개발로 나타날 것임.

- 일본 국내적으로는 안전지역인 서쪽(오사카, 후쿠오카 등)으로 이전. 해외분산화는 산업공동화 우려로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임.
- 지진 이후 이러한 분산화 전략과 함께 사업계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이 화두로 되고 있음.
- 향후 일본의 대한투자가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가시적인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임. 단, 지자체의 산발적인 투자유치로 일본기업의 신뢰성 확보가 우려됨.
- 제3국에서의 한일 연계와 관련해 재단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업측이 기업비밀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공개를 꺼리고 있는 실정
- 제3국 공동진출은 일본의 자본+기술과 한국의 엔지니어링(일정관리, 공기단축)+마케팅력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
- 지진 이후 한일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기업의 신뢰성 지수’ 개발, SJC회원 가입을 통한 일본기업과의 소통 강화(금년부터 한국기업의 가입도 가능하게 됨), 한일 경제협력 무드 조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최근 일본의 FTA정책 변화는 한국에 자극을 받은 측면이 큼.
- 일본의 FTA 체결에 따른 무역비율은 16%이나, 한국은 36%로, 후자가 더 큼.
- FTA 협상에서 템플릿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는 FTA의 성격과 내용을 결정짓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임.
- 미국은 TPP에 참여하면서 협상 템플릿에 대해 한미 FTA를 기반으로 할 것을 희망하고 있음.
- TPP 작업분과의 구성을 보면 P4 협정문보다는 한미FTA 협정문 구성에 보다 가까움.

- 미국의 입장에서 TPP는 한 마디로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전략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에 대해 TPP 참가를 요청한 바 있음.
- 중국도 TPP 참가에 관심을 표명(청용화 주일 중국대사의 닷케이신문 인터뷰)
 - 중국이 TPP에 참가하게 되면 동아시아 통합은 기존 일·중간 경쟁구도에서 마·중간 경쟁구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 일본의 입장에서 리더십 부족, 농수산업 구조조정 필요 등의 요인으로 TPP 참가가 어려워질 경우 한일 FTA가 오히려 현실적 선택지가 될 수 있음.
- 한일 FTA는 일본 농수산업계에 가장 부담이 적고, 역내에서의 양국간 공조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